

간호역사문화 융합프로그램 수행 전·후 간호대학생의 간호전문직관과 간호사이미지 비교

임소연¹, 김희정^{2*}

¹백석대학교 간호학과, ²백석대학교 간호학과

Comparison of Nursing Professionalism and Nurses's Image Before and After Convergence-based Nursing History and Culture Program in Nursing Students

So-Youn Yim¹, Heejeong Kim^{2*}

¹Division of Nursing, Baekseok University

²Division of Nursing, Baekseok University

요약 본 연구의 목적은 간호대학생의 간호역사문화 융합프로그램 수행 전·후에 간호전문직관과 간호사이미지의 차이를 비교분석하기 위함이다. 연구대상자는 충남지역에 위치한 B대학 간호학과 1,2학년 학생 29명이고, 2016년 5월 12일부터 2016년 6월 22일까지 6차례에 걸쳐 대상자에게 프로그램을 진행하였다. 간호역사문화 융합프로그램 전·후에 간호전문직관과 간호사이미지 정도를 분석한 결과 프로그램 후에 간호전문직관과 간호사이미지는 모두 유의하게 증가하였으며, 간호전문직관의 하위항목인 전문직 자아개념, 사회적 인식, 간호의 전문성과 간호사이미지의 하위항목인 간호사의 역할 및 대인관계 항목이 유의하게 증가하였다. 간호전문직관과 간호사이미지는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가 있었다. 본 연구결과를 통하여 간호역사문화 융합프로그램이 간호전문직관 및 간호사이미지 향상을 위해 비교과프로그램으로 정착되고 다양한 개념으로 개발 될 것을 기대한다.

• 주제어 : 간호역사문화 융합프로그램, 간호대학생, 간호전문직관, 간호사이미지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conducted to identify differences of nursing professionalism and nurse's image before and after convergence-based nursing history and culture program. Study subjects were 29 juniors in B nursing college. The convergence-based nursing history and culture programs had been provided 6 times. In this study, the score of nursing professionalism and nurses' image were significantly increased after program. Among the sub-items of nursing professionalism, the self-concept of professionalism, the social awareness, the professionalism of nursing showed significant improvement, and among the sub-items of nurse's image, the role of nurse, the interpersonal relationship of nurse were statistically significant improvement after program. Nursing professionalism and Nurse's image had significant positive relationship with each other. Therefore this program could be a good extra-curriculum and it is necessary to develop more variable contents.

• Key Words : Convergence, History, Culture, Nursing student, Nursing Professionalism, Nurse's Image

*Corresponding Author : 김희정(heejeongkim@bu.ac.kr)

Received June 9, 2017

Accepted September 20, 2017

Revised July 31, 2017

Published September 28, 2017

1. 서론

1.1 연구의 필요성

현대사회는 급속도로 변화하는 최첨단의 의료 환경에 따라 충분한 역량을 갖춘 간호사 배출을 필요로 하고 있으며, 이에 대학교육은 간호교육의 질 향상 및 현장실무 능력 강화를 위하여 임상이 융합된 이론과 실기에 중점을 두고 있다[1]. 그러나 간호학과 학생들은 간호사 역할에 대한 정체성이 정립되기 전에, 간호현장 실습교육에 노출되면서 임상실습 스트레스가 증가되고 있으며[2], 이는 평생 간호직무수행의 만족도를 낮추고 간호사 이직률을 높이는 요인이 된다[3]. 국가 및 정부는 조직 운영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는 간호사의 높은 이직률을 줄이기 위해 직무스트레스, 직무만족, 업무소진, 직장 내 괴롭힘 등 관련된 요인을 분석하고 있으며[4], 근본적인 해결방안으로는 간호역사, 문화의 이해를 통한 긍정적인 간호전문직관과 간호사이미지 정립의 중요성을 고려하고 있는 시점이다.

간호전문직관은 전문직으로서 간호에 대한 체계화된 견해와 간호활동과정 및 그 역할에 대한 직업 의식적 견해로 정의하고[5], 이는 직업에 대한 소명을 가지고 간호를 제공할 수 있는 가치관과 신념을 말한다. 먼저 대학교육을 통해 간호전문직관이 형성되고, 확립된 간호전문직관은 앞으로 취업을 앞둔 간호대학생들에게는 진로결정에 매우 중요한 요인이 된다[6].

간호사이미지는 간호에 대한 신념, 생각, 관념, 인상으로 태도를 결정하는 주요요소로 대학교육에 따라 변화할 수 있으므로 교육의 역할이 중요하다[7]. 한편 학생특성에 따른 체계화된 교육과정 및 교수법은 높은 전문직 간호사이미지 형성과 동기부여로 대학과정의 중도탈락을 방지하고, 미래의 간호사역할 수행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8].

한국간호교육의 창시자는 간호선교사인 에즈먼즈(Margaret Jane Edmunds, 1871-1945)로 그의 업적이 대한간호협회에서 출판한 역사 자료집 및 화보집에 수록되어 있으며, 1903년에 설립한 한국 최초의 간호사 양성소는 보구여관 양성학교로 현재 서울에서 그 터전을 확인할 수 있다. 간호역사는 인간을 돕는 행위를 교육을 통해 실천하는 과정의 역사이다. 간호문화는 간호를 수행하는 구성원들이 공유하고 있는 가치관과 신념, 이념, 관습, 규범과 전통, 지식과 기술을 포함한 행동 및 활동의 지침으로, 과거의 간호문화가 지금까지 어떻게 변화되고 발전

되었나를 정확히 이해하고 확인하는 것은 간호에 대한 이념, 철학, 개념 및 긍정적인 가치관을 정립하기위해서는 대단히 중요하다[9]. 간호학 기초전공교육과정을 포함하여, 그 외 효과적인 교육방법으로는 현장체험 및 체험학습 등 열린 학습을 통한 내면화 교육이 간호역사와 관련된 문화지평을 넓히는 것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고 사료된다[7].

최근에는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간호역사문화와 관련된 비교과프로그램 개발 등 관련된 연구결과는 전혀 없는 실정이고, 간호역사교과목 수업 후 간호사이미지의 변화[7]를 질적 연구 및 분석 한 정도이다. 또한 간호대학생의 간호전문직관 및 간호사이미지 확립을 위한 프로그램과 관련된 연구로는 이미지메이킹 프로그램이 간호대학생의 긍정적인 사고, 자아존중감 및 간호전문직관 향상에 긍정적인 결과를 보인 연구[10]와, 유휴간호사를 대상으로 재취업교육프로그램이 간호전문직관과 자기효능감을 높인 연구결과[11] 등이 전부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들에게 현장체험학습 방법에 따른 간호역사문화 융합프로그램을 개발·적용하여 간호전문직관과 간호사이미지 정도에 미치는 효과를 확인하고자 본 연구를 시행하였다.

1.2 연구의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간호대학생의 간호역사문화 융합 프로그램 수행 전·후의 간호전문직관 및 간호사이미지의 차이를 파악하고자 실시되었다

2. 연구방법

2.1 연구설계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간호역사문화 융합 프로그램 수행 전·후의 간호전문직관 및 간호사이미지의 차이를 비교하기 위한 단일집단 사전·사후 설계이다.

2.2 연구대상

본 연구의 대상자는 충남지역에 위치한 B대학의 간호학과 1, 2학년 29명을 임의 표출하였다. 대상자 수는 G Power program 3.1.0을 이용하여 산출하였으며, matched pairs t-test에서 유의수준 .05, 중간수준의 효과

크기 .50, 검정력 .80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표본 수는 총 29명으로 본 연구의 대상자수 29명은 결과를 예측하는데 적절하다.

2.3 연구도구

2.3.1 일반적 특성

본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성별, 학년, 종교, 간호학과 선택 동기, 현재까지의 봉사활동 총 시간을 조사하였다.

2.3.2 간호전문직관

간호전문직관은 전문직으로서 간호에 대한 체계화된 견해와 간호를 담당하는 간호활동 과정 및 그 직분 자체에 대한 직업 의식적 견해를 말한다[5]. 본 연구에서는 Yeun, Kwon, Ahn [12]이 개발하고 Han, Jim, Yun [14]이 요인분석을 통한 구성타당도 검증으로 축소한 도구를 사용하여 측정된 점수를 의미하며, 점수가 높을수록 간호전문직관이 긍정적임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이 도구 중 '전문직 자아개념' 6문항, '사회적 인식' 5문항, '간호의 전문성' 3문항의 3개의 하위영역을 사용하였으며, 측정 기준은 Likert 5점 척도로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5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전문직관이 높음을 의미한다. Han [13]의 연구에서 도구의 신뢰도는 Chronbach's alpha .91이었으며, 본 연구에서 Chronbach's alpha는 .89였다. 하위항목인 전문직 자아개념(6문항), 사회적 인식(5문항), 간호의 전문성에 대한 Chronbach's alpha 값은 각각 .86, .80, .73이었다.

2.3.3 간호사이미지

간호사이미지란 구성원들이 간호사에 대해 흔히 갖는 정신적 개념으로 어떤 것에 대한 방향 결정과 기본 태도에 대한 상징이며, 간호사이미지 속성으로 자질, 역할, 사회참여, 대인관계로 구성된다[14]. 본 연구에서는 간호대학생이 간호사에 대하여 갖는 정신적 개념으로 Lee 등 [14]이 개발하고, Jang [15]이 수정·보완한 간호사이미지 측정도구로 측정된 점수를 의미한다. 측정방법은 5점 척도의 Likert scale로 '매우 그렇다' 5점에서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으로 하여 측정된 점수가 더 높을수록 간호사이미지가 더 긍정적임을 의미한다. 도구의 신뢰도는 Jang [16]의 연구에서 Cronbach's alpha .95 였으며, 본 연구에서는 Cronbach's alpha .95 였다. 각 하위영역별

Cronbach's alpha는 자질(9문항) .91, 역할(7문항) .80, 사회참여(7문항) .87, 대인관계(6문항) .75 였다.

2.3.4 간호역사문화 융합프로그램

본 연구에서 간호역사문화 융합프로그램은 2명의 간호학과 교수와 2명의 인문 교양원 연구원이 문헌고찰과 2차례의 회의를 거쳐, 프로그램의 개요 및 과정설명을 위한 간담회, 최초의 간호사 양성소 '보구여관' 터전 탐방, 간호역사박물관 탐방, 대한간호협회탐방, 종합대학병원 탐방, 본 프로그램 간평회 등 4회의 탐방과 2회의 간담회로 구성하였으며, 1일 4시간씩 1주 간격으로 총 6차례로 진행되었다. 매회 탐방 전 사전학습으로 탐방지에 대한 자료를 개인적으로 수집하여 정보교환 및 토론을 30~40분간 진행하였다.

2.3.5 자료 수집

자료 수집을 위해 연구 참여자에게 자료 수집 방법 및 절차 등을 설명하고 연구 참여에 동의를 얻었다. 2016년 5월 12일부터 2016년 6월 22일까지 연구대상자에게 간호역사문화 융합프로그램을 매주 토요일 4시간씩 6차례에 걸쳐 진행되었으며, 첫 번째 프로그램 시작 전과 여섯 번째 프로그램이 종료 후에 자기기입식 설문조사 방법으로 사전·사후 조사가 이루어졌다.

2.3.5 자료 분석 방법

수집된 자료는 SPSS 18.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으며, 구체적인 분석방법은 다음과 같다. 1)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기술통계로 분석하였다. 2) 연구 대상자의 간호역사문화 융합프로그램 전·후의 간호전문직관 및 간호사이미지의 차이는 paired t-test로 분석하였다.

2.3.6 윤리적 고려

연구자는 대상자에게 연구의 목적과 과정, 연구를 통해 위해가 발생하지 않는 점과 비밀유지가 된다는 점, 그리고 본인의 의사에 따라 언제든지 참여를 철회할 수 있음을 설명한 후 연구동의서에 서명을 한 학생에게만 설문지를 배부하여 자료 수집을 실시하였다.

3. 연구결과

3.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본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Table 1>과 같으며, 여학생이 18명(62.1%), 남학생이 11명(37.9%)였다. 전체 대상자의 55.20%는 1학년 학생이었으며 나머지는 2학년 학생이었다. 종교는 무교가 18명(62.1%)로 가장 많았으며, 기독교, 천주교 순이었다. 전공 선택의 이유는 학생 스스로의 선택이 21명(72.5%)로 가장 많았으며, 가족의 조언, 성적에 따라 선택한 경우 순이었다. 봉사활동 참여 시간을 조사한 결과 10시간미만이 12명(41.4%)로 가장 많았고, 30시간 이상 봉사활동을 한 경우로 31%를 차지하였다.

3.2 간호역사문화 융합프로그램 수행 전·후의 간호전문직관 및 간호사이미지

간호역사문화 융합프로그램 전 간호대학생의 간호전문직관 및 간호사이미지는 <Table 2>와 같다. 프로그램 전 간호전문직관의 총점은 12.57±1.44였고, 하위항목인 전문직 자아개념, 사회적 인식, 간호의 전문성의 평균값은 각각 4.39±.52, 3.37±.61, 4.29±.56 이었다. 프로그램 전 간호사이미지의 총점은 126.34±13.65이었고, 하위항목인 자질, 역할, 사회참여, 대인관계의 평균은 각각 41.17±4.00, 33.44±4.11, 30.41±3.56, 25.93±3.42였다.

간호역사문화 융합프로그램 후 간호전문직관의 총점은 13.87±1.14점으로 유의하게 증가하였으며($t=-4.099$, $p<.001$), 하위항목인 전문직 자아개념($t=-3.477$, $p=.002$), 사회적 인식($t=-4.187$, $p<.001$), 간호의 전문성($t=-2.616$, $p=.014$)도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증가를 나타냈다.

또한 프로그램 후 간호사이미지 총점 역시 140.48±9.95로 유의하게 증가하였다($t=-5.058$, $p<.001$). 간호사이미지의 하위영역인 자질, 역할, 사회참여, 대인관계 중 간호사의 역할($t=-4.237$, $p<.001$) 및 대인관계($t=-4.280$, $p<.001$) 두 항목이 유의하게 증가하였다.

3.3 간호전문직관과 간호사이미지의 상관관계

간호전문직관과 간호사이미지의 상관관계는 <Table 3>과 같으며, 간호전문직관과 간호사이미지는 유의미한 양의 상관관계가 있었다($r=.722$, $p<.001$). 간호전문직관의 하위항목인 사회적 인식과 간호사이미지의 하위항목인 사회참여 간에는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없었으나($r=.341$, $p=.070$), 이를 제외한 다른 하위 항목 간에는 모두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N=29)

Variables	n	%
Gender		
Female	18	62.1
Male	11	37.9
Grade		
Freshman	16	55.2
Sophomore	13	44.8
Religion		
Christian	10	34.5
Catholic	1	3.4
None	18	62.1
Reason of Major choice		
By student's choice	21	72.5
By grade point average	3	10.3
By family's advices	5	17.2
Hours of participating volunteering programs		
< 10hrs	12	41.4
< 30hrs	8	27.6
≥30hrs	9	31.0

<Table 2> Differences of the Nursing Professionalism and Nurse's Image After Convergence-Based Nursing's History and Culture Program Among Nursing College Students

Variables	Training Program		t	p
	pre	post		
	Mean±SD			
Nursing Professionalism	12.57±1.44	13.87±1.14	-4.099	<.001**
the self-concept of professionalism	4.39±.52	4.77±.30	-3.477	.002*
the social awareness	3.37±.61	4.45±.62	-4.187	<.001**
the professionalism of nursing	4.29±.56	4.64±.42	-2.616	.014*
Nurse's Image	126.34±13.65	140.48±9.95	-5.058	<.001**
the qualification of nurse	41.17±4.00	42.68±3.04	-1.815	.080
the role of nurse	33.44±4.11	32.13±3.16	-4.237	<.001**
the social participation of nurse	30.41±3.56	32.13±2.92	-2.033	.052
the interpersonal relationship of nurse	25.93±3.42	28.58±1.89	-4.280	<.001**

**p<.01, *p<.05

<Table 3> Relationships of the Nursing Professionalism and Nurse's Image Among Nursing College Student

Variables	Nurse's Image	qualification of nurse	role of nurse	social participation of nurse	interpersonal relationship of nurse
Nursing Professionalism	.722**	.714**	.696**	.500**	.711**
self-concept of professionalism	.708**	.653**	.686**	.574**	.638**
social awareness	.555**	.534**	.558**	.341	.599**
professionalism of nursing	.605**	.653**	.548**	.423	.561**

**p<.01, *p<.05

4. 논의

급변하는 의료 환경 안에서 요구되는 충분한 역량과 경험을 갖춘 간호사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간호사가 지녀야 할 간호에 대한 체계화 된 견해인 간호전문직관과 간호에 대한 신념 및 생각을 결정하는 간호사이미지의 올바른 인식이 필요하다. 대학의 교육역할이 우선적으로 중요한데, 이는 간호대학생이 간호에 대한 이념, 철학, 개념과 관련된 교육을 통해 긍정적인 가치관을 정립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간호역사문화 융합프로그램 전·후의 간호전문직관 및 간호사 이미지의 차이를 비교하는 데 목적을 두고 실시하였으며, 다음과 같은 논의를 하고자 한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2명의 간호학과 교수와 2명의 인문 교양원 연구원이 문헌고찰과 2차례의 회의를 거쳐 현장체험 및 체험학습에 따른 간호역사문화 융합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활용하여 간호대학생의 간호전문직관과 간호사이미지에 미치는 효과를 검증하고자 실시되었다. 실험군을 대상으로 교육프로그램 전·후에 간호전문직관의 총점은 13.87 ± 1.14 점($t = -4.099$, $p < .001$), 간호사이미지 총점 역시 140.48 ± 9.95 ($t = -5.058$, $p < .001$)로 유의하게 증가하였다는 것은 과거 간호역사의 터전인 '보구여관', 간호역사박물관 탐방에서부터 현재 대한간호협회, 종합대학병원 견학 등의 6차에 걸친 교육프로그램의 주요구성 및 내용체계가 다소 검증된 것이라 사료된다. 선행연구에서 간호역사문화 프로그램과 관련된 연구가 없어서 비교분석하기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으나, 간호역사를 포함한 다양한 역사연구프로그램은 현장을 기초하여 탐구적인 경험을 갖고 참여자 간의 협력적 관계를 갖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보고한 연구결과[16]는 본 연구의 결과와 일치한다.

둘째, 간호역사문화 융합프로그램 후 전문직 자아개념, 사회적 인식, 간호의 전문성 등 간호전문직관의 하위개념 모두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증가되었다. 연구대

상자인 1,2학년 간호대학생이 현재 진로선택 및 과중한 학업부담 등 대학생활의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대다수인데, 간호의 가치관이 확립되면서 부담이 경감될 수 있고 [17], 또한 앞으로 3학년이 되어 임상현장실습교육을 수행할 때 느끼는 스트레스 정도를 낮추어 주어 임상수행능력을 효과적으로 발휘할 수 있을 뿐더러[18], 장기적인 안목에서 추후 간호사의 이직률을 감소시킬 수 있다고 본다. 한편 학년별 특성에 따른 간호역사문화 프로그램의 연속적인 진행은 전문성, 직업윤리 등 간호전문직관을 더 심층 있게 확립할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다고 생각된다.

셋째, 간호역사문화 융합프로그램 후 간호사이미지 총점 역시 유의하게 증가하였다. 특히 간호사이미지의 하위영역인 자질, 역할, 사회참여, 대인관계 중 간호사의 역할 및 대인관계 등 두 항목이 유의하게 증가하였는데, 이는 간호사가 되기 위한 준비과정에 있는 간호대학생들에게 절실히 필요한 영역이다. 간호대학생들에게는 대중매체의 영향으로 간호사를 전문직종보다는 백의의 천사, 희생과 봉사 등만의 이미지로 고정관념이 생겨 학업을 중도 탈락하는 경우가 적지 않기 때문이다. 또한 최근 남자간호대학생이 급증하는 시점에서 간호사의 여성적인 이미지에서 탈피하기 위해서는 기초간호교육과정 외 역사문화의 지평을 넓힐 수 있는 현장경험 혹은 체험학습의 내면화교육이 필요하다고 보고한 연구[7]결과도 본 연구결과를 전적으로 지지한다고 본다.

넷째, 본 연구에서 간호전문직관과 간호사이미지는 유의미한 상관관계로 간호전문직관이 높을수록 간호사이미지가 높아지는 결과를 보였다. 이는 선행연구에서 간호전문직관, 간호사이미지 및 전문직 자아개념의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를 보여준 결과[19]와 같은 맥락이다. 즉 전문직 간호사의 긍정적인 직업적 견해는 간호사의 신념, 생각, 관념, 인상, 태도를 높일 수 있음을 시사한다. 간호역사문화 융합프로그램을 앞으로 수정, 보완하여 체계화

된 비교과프로그램으로 정착되는 것은 간호대학생의 간호정체성이 확립되어 소명의식을 통해 평생전문직을 통한 간호역량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중요역할을 할 것으로 사료되는 바이다.

5. 결론 및 제언

본 연구의 대상자는 충남지역에 위치한 B대학의 간호학과 1, 2학년 29명을 임의 표출하여, 간호역사문화 융합프로그램 전·후의 간호전문직관 및 간호사이미지의 차이를 비교하기 위하여 시도되었다. 연구결과로는 간호역사문화 융합프로그램 후 간호전문직관과 간호사 이미지가 유의하게 증가되었으며, 간호전문직관과 간호사이미지는 유의한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이는 본 연구에서 진행한 간호역사문화 융합프로그램이 비교과 프로그램으로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상의 결과를 기초하여, 향후 간호역사문화 융합프로그램이 간호대학생의 간호전문직관과 간호사이미지에 미치는 효과를 보다 명확하게 검증하기 위해서는 표본수를 충분히 확보하고, 실험군과 대조군을 비교분석하는 실험연구가 새로이 시도되어야 할 것이다. 지속적으로 후속연구를 통하여 학년별 맞춤형 간호역사문화 융합프로그램의 내용 및 교육방안을 보완, 개발하여 간호전문직관과 간호사이미지를 높이기 위한 체계적인 교육과정을 연구할 것을 기대한다.

REFERENCES

- [1] S. Y. Yim, M. H. Park, "Comparison of the Self Confidence for Newborn Baby Care Before and After Clinical Convergence Baby Massage Training Program in Nursing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 Convergence Society*, Vol. 8, No. 4, pp. 59-65, 2017.
- [2] H. S. Lee, Y. J. Kim, "The Comparison of Stress Coping and Satisfaction with Clinical Practice according to the Grade of Nursing College Student", *Journal of East-West Nursing Research*, Vol. 14, No. 1, pp. 5-13, 2008.
- [3] B. M. Bang, Y. S. Lee, J. O. Cheong, "Empirical study on the turn-over intention of university hospital nurses",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Vol. 13, No. 2, pp. 205-213, 2015.
- [4] Y. J. Lee, G. A. Seo, "Impact of Unit-level Nurse Practice Environment on Nurse Turnover Intention",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Vol. 14, No. 6, pp. 355-362, 2016.
- [5] D. Weis, M. J. Schank, "A instrument to measure professional nursing values", *F. Nurse Scholarsh*, Vol. 32, No. 2, pp. 201-204, 2000.
- [6] E. H. Hwang, S. J. Shin, "Factors impacting nursing Professionalism among nursing students", *Journal of Korean public Health Nursing*, Vol. 31, No. 1, pp. 97-108, 2017.
- [7] S. D. Kim, "Changes in the image of nursing in first year nursing students after history, philosophy of nursing courses",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Administration*, Vol. 18, No. 3, pp. 301-309, 2012.
- [8] T. Morris, J. Shepherd, R. Plata, D. Marks, "Diversity, fulfillment and privilege: the image of nursing". *Journal of Nursing Management*, Vol. 19, No. 5, pp. 683-692, 2011.
- [9] Y. S. Ha, "Historical review of nursing education at the college of nursing science at Ewah woman's university", *Nursing Science*, Vol. 8, No. 2, pp. 1-11, 1996.
- [10] I. H. Moon, G. W. Lee, S. H. Jeong, "Effect of image making program on image making efficacy, positive thinking, self-esteem, and nursing professionalism in nursing students", *The journal of Korean Nursing Administration Academic Society*, Vol. 21, No.1, pp. 122-132, 2015.
- [11] M. R. Han, S. M. Choi, "Effects of s refresher program for inactive nurses on nursing professionalism and nursing clinical self-efficacy",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Administration*, Vol. 17, No. 1, pp. 44-53, 2011.
- [12] E. S. Yeun, Y. M. Kwon, O. H. Ahn,

“Development of a nursing professional values scale.”,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Vol. 35, pp. 1091-1100, 2005.

- [13] S. S. Han, M. H. Kim, E. K. Yun, “Factors affecting nursing professionalism”,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Vol. 14 No. 1, pp. 73-79, 2008.
- [14] H. R. Lee, K. O. Choi, J. E. Ko, M. R. Hong, S. Y. Kim, H. S. Shin, “The survey on image of nurse”, Journal of KyungHee Nursing Research, Vol. 15, pp. 45-65, 1992.
- [15] S. H. Jang, “Research of nurses’ image”, master’s thesis, Kyung Hee University, Seoul. 1998.
- [16] M. M. Lee, “Case analysis of history teacher professional development in the US”, The Korean Historical Educational Society, Vol. 23, pp. 117-155, 2015.
- [17] K. O. Lee, H. J. Chae, “The relationships between emotional intelligence and college adjustment and nursing professionalism in nursing students”,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Vol. 14, No. 10, pp. 355-365, 2016.
- [18] E. S. Lee, M. S. Park, “A study of convergence relationships among nurses’ image, professional self-concept and nursing professionalism in nursing students”,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Vol. 15, No. 1, pp. 311-320, 2017.
- [19] E. S. Lee, M. S. Park, “A study of convergence relationships among nurses’ image, professional self-concept and nursing professionalism in nursing students”,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Vol. 15, pp. 311-320, 2017.

저자소개

임 소 연(So-Youn Yim)

[정회원]



- 1987년 2월 : 이화여자대학교 간호학과(간호학사)
- 2000년 8월 :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간호학석사)
- 2013년 2월 :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간호학박사)

• 2013년 3월 ~ 현재 : 백석대학교 간호학과 교수
 <관심분야> : 청소년 기질 애착, 학령전기 인지

김 희 정(Heejeong Kim)

[정회원]



- 2002년 2월 : 이화여자대학교 간호학과(간호학사)
- 2008년 8월 :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간호학석사, 노인전문간호사)
- 2012년 2월 :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성인간호학박사)

• 2012년 3월 ~ 현재 : 백석대학교 간호학과 교수
 <관심분야> : 만성 질환, 건강 증진, 간호 교육